



선교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탄자니아는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나?

선교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고자 당신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TCBC 동창 모두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탄자니아가 세계 선교의 허브가 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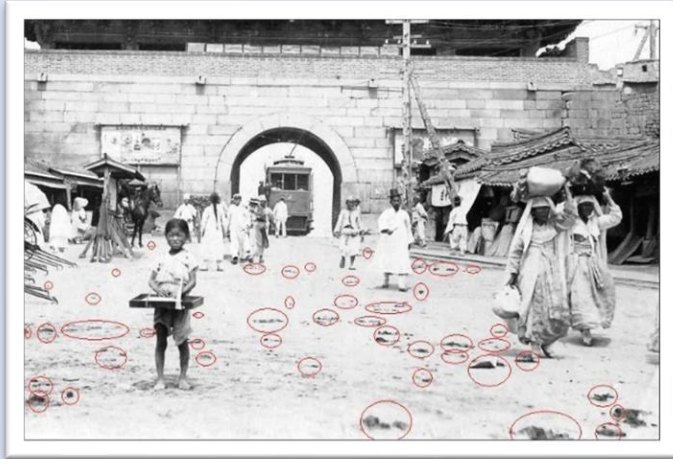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호세아 2:23)

저는 오늘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사대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똥’입니다. 19세기 어느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대한민국



[조선 말 서울 사대문 안의 모습]

이전 국호)을 더러운 나라, 미신의 나라, 착취의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1910 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35 년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었습니다. 1945 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했지만 1950 년 코리아는 남북한의 내전인, 한국전쟁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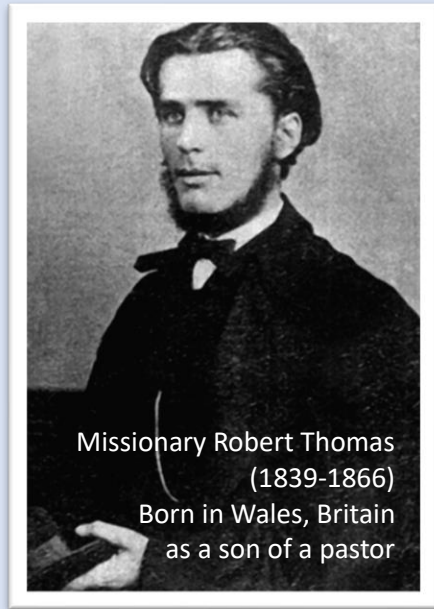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 때 에티오피아, 필리핀, 남아공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53 년 전쟁 이후 70 년, 2023 년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수준 10 위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뚱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1 세기 서울의 모습]

한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코리아는 남북을 합하여 탄자니아 면적의 1/4 정도 크기인데 총 약 6,000 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놀라운 숫자이지요?



Missionary Robert Thomas
(1839-1866)
Born in Wales, Britain
as a son of a pastor

그 중 토마스 선교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14 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63 년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24 세가 되던 다음 해 선교의 동역자인 아내를 잃었습니다. 연단의 시기를 보내던 그는 기독교 핍박을 피해 중국에 간 조선인들을 만나 사역의 방향을 조선에 두고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며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 년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관으로 승선하고 조선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당한 양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조선인들로부터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상기되고 희망에 부풀니다. 미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을 믿으며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기독교 핍박이 무척 심하고 8 천명 대학살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갔습니다. 상선은 조선의 북부 평양 대동강에 정박했습니다. 그곳에는 무기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배를 탄 서양인들이 그들의 땅을 침략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군인은 배에 무기를 발사하고 화제를 일으켜 배를 침몰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서양인들도 모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죽게 된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온 작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 사역의 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죽을 당시, 27 세 그의 죽음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기 전 그의 앞에서 있던 군인 박춘권에게 작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훗날 박춘권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서양인을 죽이려고 할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중얼거리더니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붉은 무명천을 쓴 작은 책을 주었다. 어쩔 수 없어 받았다.” 나중에 박춘권은 그 작은 책,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의 조카가 집에 왔을 때 성경을 읽으라고 주었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는 후에 선교사와 함께 구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박춘권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몇 권의 작은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은 머나먼 훗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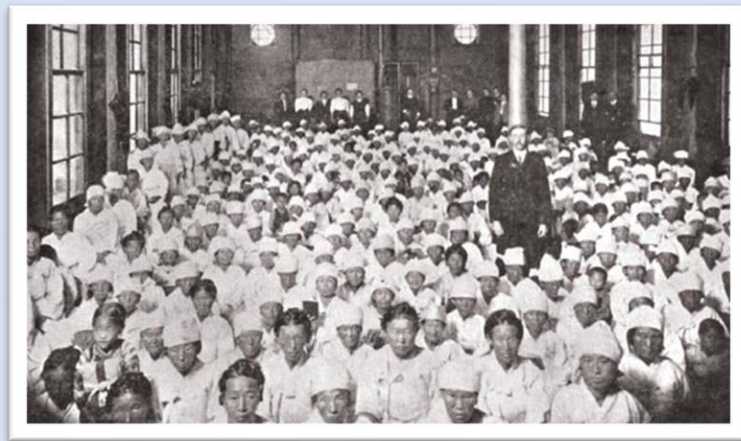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성경을 가져간 또 다른 사람은 13 살 소년이었다. 최치량입니다. 그는 서양인이 남긴 성경을 집에 두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평양의 간부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당시에 책이나 종이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매우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벽에 모두 벽지처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밥을 먹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말씀에 닿을 때마다 중얼거리며 읽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박영식에게 성경을 준 최치량은 성인이 된 후 박영식의 성경책이 벽에 붙어있는 집을 사서 여관으로



최치량(좌)과 성경책이 벽에 붙은 그의 집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7년 후인 1893년, 또 다른 선교사인 사무엘 마펏 (Samuel Mapet)이 평양에 왔습니다. 그는 마침 성경이 벽에 붙어 있는 최치량의 여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벽에 붙은 성경책을 보자마자 자신이 평양에 온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해 최치량은 마펏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성경책이 붙어있는 그의 집을 하나님께 바쳐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교회의 모교회입니다. 평양대부흥은 한국교회의 첫 번째 부흥 역사였고 그 중심에는 마펏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선교의 밑알,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24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씨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이후 1907년 평양부흥운동에 이어 100만

영혼구원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41년 전 뿌려진, 무의미해 보이던 27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에 이어 한국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올리비아 에비슨 (Olivia Evison) 선교사를 통해 미래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연희전문학교)과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세브란스)을 건립하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한성 감옥에는 미래의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훗날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의 학생이기도 했던 이승만을 찾아가 전도했습니다. 이승만은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에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



[한성감옥의 이승만(좌)과 미래의 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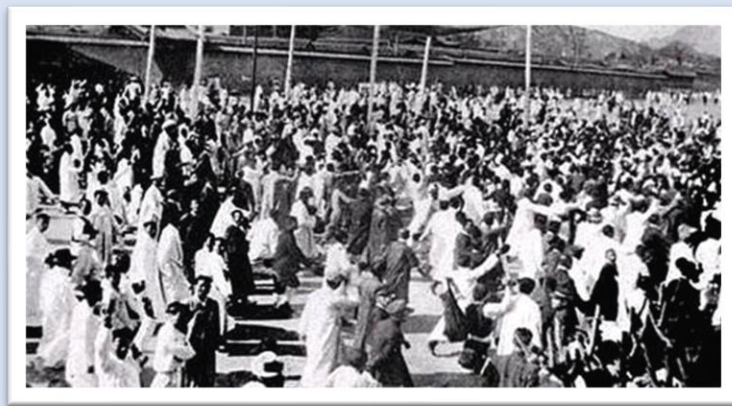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은 고문을 받는 고통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매우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민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책을 받아 감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학당을 세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은 그들과 함께 기독교를

통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확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물줄기는 기독교”라고 믿었습니다. 1904년 수감을 마치고 나라를 살리기 사람이 되겠다고 미국으로 학업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1910년 고국에 돌아왔으나 살려야 할 나라는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910년부터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EAMF 선교회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이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리빙 스톤 학교의 설립을 추진한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시작된 민족교회는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주로 1% 밖에 안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전국적인



[평화적 독립운동]

운동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으로 평화롭게 국기를 휘날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민족을 택하셔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고 아시아에서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한국에게 맡기셨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의 선교역사에 대한 강의를 리빙 스톤 학생들에게 하면서 이승만의 믿음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를 택하셔서, 아프리카 기독교 문명 발전의 책임을

탄자니아에 맡기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런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전국적 독립운동 이후 1919 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반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19 년 한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한국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일본이 태양신의 상징인 일본 천황을 참배하도록 강요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식민기간 일본은 한국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총칼의 강압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교파들은 단계적으로 서로



타협했고 마침내 1938 년 9 월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일본의 태양신 숭배에 동의했다. 1945 년 광복때까지 7 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의 모든 종파가 일본 태양신을 숭배했지만 모든 교회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등대 같았으나 교회는 국가에 대한 반역의 수치만큼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 엄청난 배신의 결과로 한국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민족교회가 한성 감옥에서 맺은 언약과 국가 차원의 임시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분열시켜 한국을 벌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지금 북한의 태양신 김일성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국 교회는 일본의 태양신을 숭배했고, 지금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충실한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이 언약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1대 제헌의회 개회식은 감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헌의회 공문서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세계인의 양심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민족의 소원을 들어주신 증거로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평화와 함께 삶의 즐거움과 안녕을 허락하옵소서.” 한국 국회에서 이런 기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도자들의 국가 차원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무척 중요합니다. 국회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건국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성교도소에서 민족교회와 신앙인들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비록 한국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역사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흠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선교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교회들은 복음을 위해 더 흠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와 교세를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전쟁을 통해 그들을 흠어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이후 엄청난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남한으로 피난했고 남한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한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전세계에 3 만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국가의 발전을 주셨습니다.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교회가 부흥하거나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2. 요셉의 용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엣그제 저는 요셉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22 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을 만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화해의 자리로 갔습니다. 요셉은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의 아픔을 피해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팔렸지만 자신을 팔린 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했음을 알게 했습니다. 창세기 50 장 20 절은 갈등 속에서 영광을 돌린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이루어진 일 곧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탄자니아에 요셉과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백한 탄자니아의 많은 젊은 요셉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30 장 26 절에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에는 달은 해와 같이 빛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 갈등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럽은 급속도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유럽교회에는 술집, 옷 가게, 체육관, 심지어 모스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의 힘든 오지마다 다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미약해 보입니다. 유럽은 정서적으로 아프리카를 가깝게 여깁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을 아시아 사람보다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의 8 개 이웃나라와 기독교 역사가 풍성했던 북아프리카를 넘어 유럽을 가슴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10 년 후면 탄자니아가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지 모릅니다. 한국도 20 년 후에는 선교대상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TCBC 동문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탄자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의 New Wave 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넘는 선교의 비전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세계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읍시다. 인간의 실수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탄자니아를 세계선교의 허브로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기까지 역사를 통해 흐르는 아픔의 정서를 바꾸기 위해 요셉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기 바랍니다. 시편기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움이나 원망, 억울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식민역사에서 했던 나쁜 역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위치에 있었으면 그 역할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잘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모든 인식, 경험, 편견과 오해를 다 씻어내고 선교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기때문입니다.

셋째, 흠어져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흠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늘 나라를 사랑한다면 흠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자니아의 교회는 지금 대단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분포가 지난 10 년동안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흠어져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싸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큰 후원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작은 후원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물질만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선교역사에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하루에 100 실링을 모으면 1 년에 36,500 실링을 선교헌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10 명이 이것을 결심하면 매달 3 만 실링을 교회 이름으로 후원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도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100 개라면 벌써 천명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만명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저희 선교회에는 부부가 매일 점심값 1 달러를 아껴 한달에 60 달러를 선교헌금하셨던 부부가 있습니다. 20 년이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헌신과 열정이 TCBC 와 리빙 스톤 학교가 있게 한 것입니다. 탄자니아가 세계 선교의 허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탄자니아를 축복하실 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 탄자니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의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대륙을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의 위상 차트를 보십시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출지수 6위, 수입지수 8위 등 경제력은 10위, 혁신파워는 세계 2위, 지적 재산지수는 6위, 반도체 지수는 2위, 자동차는 6위, AI 지수는 7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 한국의 국력지수는 6위입니다. 모든 ICT 분야는 거의 세계 최고의 기록입니다. 기대 수명은 84세입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7위입니다. 경제, 교육, 보건, 기술, 사회복지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포인트는 선교이지 나라의 발전과 부가 아닙니다. 선교하면 나라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셨을 때 그는 지혜를 달라 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리빙 스톤 모토는 남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받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받을 때 뿐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복이 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누가 또 안주나 하고 늘 받을 기대만 합니다. 그러면 삶이 늘 궁핍하지요. 비밀을 아는 사람만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전 세계 220개국 중 169개국 약 22,200여명의 선교사가 2022년까지 파송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파송 선교사 수가 증가할 때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가 1만 명 정도일 때, 1인당

GDP 도 만 달러였습니다. 또 선교사가 2 만 명이 되었을 때, 1 인당 GDP 도 2 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다.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선교사들이 생활이 어려운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곳에도 갑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은 중동, 파키스탄, 심지어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험한 선교지로 갑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 20 만에서 40 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07 년 평양대부흥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들의 후손이 4, 5 대를 이어 예수님을 숨어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선교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총살을 당하거나 평생을 정치범수용소라고 하는 노동하는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노동교화소에서 동물 취급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종종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통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선교를 위한 한국의 땅끝은 북한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는 아닙니까? 유럽은 아닙니까? 여러분, 탄자니아의 예루살렘에만 생각하지 말고 탄자니아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탄자니아의 땅끝을 향해 이제 결단하고, 선교의 대장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탄자니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TCBC Alumni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각자 New Wave 파동의 근원지가 되십시오. 갈렙처럼 여러분의 산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선교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나라, 미신과 착취의 나라 한국은 이제 세계의 선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게 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자니아를 택하옵소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탄자니아에 맡기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나온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를 먼저 가슴에 품게 하시고 아프리카 온 대륙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럽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흠어질 결단을 가능하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살아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